경제난 반영 암울한 현실 서사화

202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심사가 15일 본사 편집국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배다인 동화작가, 이대흠 시인, 함정임 소설가. /최현배 기자 choi@

광주일보 신춘문예 심사 마무리…시·소설·동화 등1856편 투고
코로나 소재 작품 급감…시 부문 은유·상징 돋보이는 작품 많아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삶은 점차 파편화되고 있다. 그로 인한 인간의 부품화, 도구화 또한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대 사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르가 바로 문학이다. 오늘의 단자화된 도시 공간의 양상은 문학에도 일정하게 반영되는 특징을 보인다. 올해 신춘문예 심사에서도 그러한 경향성을 보이는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2023 광주일보신춘문예 심사가 완료됐다.

이번 심사는 15일 본사 편집국 9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함정임 소설가, 이대흠 시인, 배다인 동화작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올해는 시 1552편, 소설 166편, 동화 138편 등 총 1856편이 투고됐다. 예년과 비슷한 현황을 보여 신춘문예에 대한 열망을 읽을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 팬데믹을 다룬 작품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피로감이 작품 형상화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올해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를 다룬 작품도 거의 없었다. 심사위원들은 참사를 서사화하기에는 내면화하고 형상화하는 데 일정한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응모자들은 광주 전남 외에도 전국에 분포할 만큼 다양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 영남 등 각지에서 투고를 한 이들과 외국에서 작품을 보내온 문청도 있었다.

사람살이의 다양한 모습을 그리는 소설 부문은 악화된 경제 상황을 그린 작품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지속되는 경제난이 글쓰기의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함정임 소설가는 "암울한 현실을 서사화한 작품들이 많았지만 한편으로 서사적인 기본기가 약한 작품들도 있었다"며 "소설은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므로 서사적인 부분은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삶의 회로가 단자화되는 양상을 다룬 작품들과 소설 장르의 경계가 완화되는 듯한 시적인 산문을 추구하는 작품들도 더러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 부문은 일정한 수준을 갖춘 작품이 많았다. 그러나 시대 상황이나 현실세계를 리얼하게 그려낸 작품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는 평이 따랐다.

본심을 맡은 이대흠 시인은 "은유와 상징적 표현에 능숙한 작품들도 많아 신선한 느낌이었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이나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사회적 발언을 담은 작품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진혜진 시인은 "응모작을 대할 때 시적 발상과 좋은 소재로 계속 상상을 확대해나갔는지, 한 소재로 충분히 개연성 있으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봤다"고 밝혔다.

동화는 새로움을 제시한 작품보다는 개념을 풀어내는 작품들이 있었다. 어린이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전개한 작품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배다인 동화작가는 "사물의 시각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작품들은 나름의 시사점을 주었지만 작가의 의도가 앞서는 경향이 강했다"며 "모티브를 작품에 잘 용해시켜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각 부문 당선작은 2023년 광주일보 신년호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용극으로 탄생한 광주 관광지와 사계

나빌레라 예술단 내일 광주박물관

광주의 관광지와 사계절을 연계한 무용극이 마련됐다.

나빌레라 예술단은 17일 오후 4시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제 9회 정기공연 '춘하추동'을 연다.

'춘하추동'은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를 한국의 사계절에 빗대 스토리텔링한 무용극으로 광주에서 태어나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아온 음유시인이 이야기 중심이 돼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다.

공연은 여름을 배경으로 시작된다. 광주의 중심을 흐르는 광주천을 표현하며 이 가운데 여름을 만끽하는 각설이가 등장한다. 다음으로 가을로 넘어가 광주 문인들의 환벽당 이야기를 펼친 뒤 겨울 국창 임방울 선생을 기념하는 송정동의 하늘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봄 무등산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의재로의 길을 그려내며 공연을 마무리한다.

연출에는 광주시 무용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한명선이, 주역에 김보라와 김원선이 함께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나빌레라 예술단 공연 모습.

전시로 눈 호강…음악회로 귀 호강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

광주시립미술관 전시 연계 프로
17일 5·18청소년오케스트라 초청
18일 요나스 메카스전 필름 토크

요나스 메카스

'전시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

광주시립미술관이 현재 열리고 있는 전시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Gwangju Media Art Platform)은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아트 특별전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과 연계해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를 개최한다. 17일 오전 11시 1층 로비.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전은 1980년 5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이이남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조각과 영상으로 재해석한 기획전이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생들로 구성된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는 민주·인권·평화 및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정체성을 아우르는 연주단체다.

공연 레퍼토리는 '동요 메들리', '아리랑', 민중가요 '님을 위한 행진곡', '아침이슬', '라데츠키 행진곡' 등이다.

광주시립미술관 본관에서는 요나스 메카스 탄생 100주년 기념전 '요나스 메카스+백남준: 나의 친애하는 친구들에게(To All My Dear Friends)'(2023년 2월 28일)과 연계, 필름 토크를 진행한다. 16일 오후 2시 본관 북 라운지.

이번 전시는 요나스 메카스의 필름 다이어리를 통해 백남준, 앤디 워홀 등 예술가들과의 우정의 안부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획이다.

필름 토크는 100주년 기념전의 자문위원이자 독립영화 제작자 및 큐레이터인 김은희와 핍 초도로프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로 '필름앤비디오'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했던 김은희는 2017년 현대미술관에서 열렸던 '요나스 메카스 회고전 찰나, 힐긋, 돌아보다'전을 총괄 기획했다. 핍 초도로프는 실험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으며 파리에서 요나스 메카스 주요 영화 배급을 담당하는 르:브아르와 '필름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필름 토크에서는 요나스 메카스의 생애, 필름 예술세계, 백남준 등 예술가들과의 우정에 대해 전시한 주요 필름들에 대해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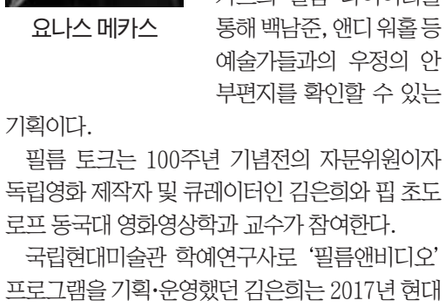
이정명 '부서진 여름' NYT '올해의 스릴러'

오해로 비틀린 세 남녀의 운명
아마존 사이트 리뷰 2000개 넘어

이정명 장편 소설 '부서진 여름'(Broken Summer)이 미국 뉴욕타임스(NYT) 선정 '올해의 스릴러'(The Best Thrillers of 2022)에 이름을 올렸다고 은행나무 출판사가 13일 전했다.

이 리스트에는 '부서진 여름'과 함께 영국 작가 재니스 할렛의 '디 어필'(THE APPEAL)과 영국 작가 애덤 햄디의 '디 아더 사이드 오브 나이트'등 6권이 올랐다.

지난해 은행나무에서 출간된 '부서진 여름'은 심리 묘사와 치밀한 서사, 긴장감 있는 전개가 돋보인 작품이다. 거짓말과 오해가 인간의 삶에 개입해 단란했던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들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빼앗는지 세 남녀의 비틀린 운명을 통해 그려냈다.



'부서진 여름' 영문버전(왼쪽), 한글버전

올해 9월 미국 아마존 크로싱에서 출간돼 뉴욕타임스 북리뷰 에디터스 추천 신간에 소개됐다. 아마존 책 소개 사이트에서 2000 개가 넘는 독자 리뷰가 달리기도 했다. 이정명 작가는 소설 '뿌리 깊은 나무'와 '바람의 화원', 해외 10여개국에 번역 출간된 '별을 스치는 바람' 등을 펴냈다.

/연합뉴스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망고객 확보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유동인구 폭발 증가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MG골프클럽

구 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中

5층 MG문화센터
회원 大 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中

MG금남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